

180/02 평박

- “생명의 전화”, “목회 상담” = 한국에서 선구적인 사업이었으며 큰 기여했다.
- “기독교 상담 활동”의 과제 = 민주화운동 참여자 및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 개입,
ex: 김근태 트라우마치유센터 Model 고려 필요,
사회에서 소외된 운동권 출신 부모의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이전되는 사례 확인
“무능한 부모의 좌절, 자녀의 정신 질환 유발”, “개각 명단 보며 ‘같이 운동했던 애다’“
“영화 괴물, 술만 먹는 삼촌, ‘민주화 운동에 몸 바쳤는데 취직도 시켜주지 않는다.’”
“공지영 소설, 좌절한 운동권 출신 주인공들은 주변에 현존한다.”
“사회적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 = Fanon, The Wretched of the Earth 연상”
- 신명교회 - 황주석의 현장 목회 실험(평신도 중심 교회) ,
||
- 독산동 YWCA 야학 - 이목희 의원의 요청으로 간여 경험 (1978 가을 - 1979 봄)
- 황주석, 서철용(71 위수령 세대, 성균관대), 이목희(서울 상대 71, 당시 국제경제연구원)
박동일 목사(당시 공군 장교), 박석인(금호 근무, 광주일고, 서울상대 68), 임상택(민청학련),
김희중(한신대생, 사망), 백완승(고대 신방과, 민주화 운동 활동가), 이재우(이대 사학),
안희옥(고대 ?), 박종원(이대 음대, 문화운동).
- “야학”(노동운동 지향) vs “교회”(대안 교회 공동체 지향)
- 경찰의 교회 수색 등 탄압,
- 야학에 대한 탄압 (Y관장은 사설학원법 위반 벌금형)
- 소집단으로 분산,
- 섬유노조의 노동교육과 연관되어 추적, 소집단 폐쇄됨.(본인 경험)
- 현재의 신명교회는 새로 조직된 것임.